FOCUS

- KS규격 개정에 대한 건의 -

우리협회에서는 국립기술품질원에서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규격개정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건의(98 6. 16)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검토사유로는, 시멘트제조업계 연구시험결과에서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분말을 중량비로 5~18% 범위에서 첨가 제조한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성능이 KS품질규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멘트의 품질규격이 시멘트업계에서 생산 공급되는 시멘트의 품질보다 큰 폭으로 하향 제정되어 있으며, 레미콘 사에서는 첨가제 5%이내 혼합 분쇄된 시멘트의 품질을 기준으로 배합설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첨가제 10%혼합 분쇄한 시멘트의 품질시험 결과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첨가제 증가시 응결시간의 변화폭은 적으나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레미콘사의 계절별 배합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 ■

현 행 규 정	개 정 (안)	건 의 내 용
3. 원료 및 제조방법 포틀랜드시멘트는 주성분인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 및 산화철을 함유하는 원료를 적당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하여, 그 일부가 용융하여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하여 분말로 한 것이다. 다만, KS L 5210(고로슬래그시멘트)에서 규정한 슬래그나, KS L(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에서 규정한 포졸란, 또는 KS L 5405(플라이애쉬)에서 규정한 플라이애쉬 및 기타 첨가제 등을 시멘트의 5%이내에서 혼합 또는 단독 분쇄후 혼합할 수 있다.	3. 원료 및 제조방법 포틀랜드시멘트는 주성분인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 및 산화철을 함유하는 원료를 적당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하여, 그 일부가 용융하여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하여 분말로 한 것이다. 다만, KS L 5210(고로슬래그시멘트)에서 규정한 슬래그나, KS L(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에서 규정한 포졸란, 또는 KS L 5405(플라이애쉬)에서 규정한 플라이애쉬 및 기타 첨가제 등을 시멘트의 5%(1종은 10%)이내에서 혼합 또는 단독 분쇄후 혼합할 수 있다.	3. 원료 및 제조방법 포틀랜드시멘트는 주성분인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 및 산화철을 함유하는 원료를 적당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하여, 그 일부가 용융하여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하여 분말로 한 것이다. 다만, KS L 5210(고로슬래그시멘트)에서 규정한 슬래그나, KS L(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에서 규정한 포졸란, 또는 KS L 5405(플라이애쉬)에서 규정한 플라이애쉬 및 기타 첨가제 등을 시멘트의 5%이내에서 혼합 또는 단독 분쇄후 혼합할 수 있다.

특히 응결시간 지연시 하절기에는 유리하나, 동절기에 배합운영에 불리함.

둘째 플로우에 있어 고로슬래그 분말의 경우 첨가제 증가시 단위수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레미콘배합설계시 물-시멘트비 상승으로 배합 단위시멘트량이 증가되며, 이에 따른 레미콘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함.

셋째 콘크리트슬럼프 및 공기량에 있어 - 플라이애쉬 : 첨가제 증가에 따른 공기량 감소하여 콘크리트내 공기량을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사용할 때와 동등수준 유지하려면, AE제 사용량이 증가되며, 연구시험에서 나타난 공기량(2.9%)을 첨가제 5% 혼합분쇄시 공기량 (4.0%)과 동일하게 유지시 콘크리트압축강도 저하되고, - 고로슬래그 분말 : 연구시험 분석결과 분말도 3500cm²/g 의 경우에는 단위수량이 다소 증가하나, 분말도 4800cm²/g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품질시험에 사용한 분말도가 4800 cm²/g을 대상으로 시험하였음에도 기준 슬럼프가 12cm이나 시험슬럼프가 9cm로 낮게 나타남.

넷째 압축강도에 있어 플라이애쉬의 경우 첨가제 5% 사용할 때와 동일 공기량 유지시 연구시험결과와 차이가 발생하고, 고로슬래그 분말의 경우 첨가제 5% 혼합분쇄 시멘트 사용시와 동일슬럼프 유지시 단위수량 증가로 연구시험결과와 차이 발생함.

다섯째 조기강도면에서 현행 3일, 7일,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모든 공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콘크리트의 합부판정에 결정적인 역할로 좌우함에 조기강도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조기강도를 요구하는 공사는 겨울철, 구조물에 따른 요구가 매우심각함.

여섯째 첨가제 수급의 문제에 있어 플라이애쉬 연간생산량이 약130만톤이고 시멘트 생산량의 10%가 600만톤이므로 F/A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F/A 수급이 원활치 않을시 F/A 함유비율이 일정치 않아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 공기량등에 불량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일곱째 건설현장의 작업속성상 빠른공기로 인한 레미콘사에 초기강도를 상승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클레임과 구조물의 부실화를 초래할수 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한의 제한을 초래할수 있음.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할 때 상기의 여러 가지 품질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를 사용하기 위한 보통포틀랜드시멘트 1종의 개정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의 플라이애쉬 시멘트(KS L 5211) 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립기술품질원에 회신 하였다.

- 레미콘업체 ISO인증획득 증가 -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건설시장의 완전개방은 레미콘업체 및 건설사들의 국제화규격 부합화에 전력을 다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타산업의 국제규격인증획득에 비하여는 낮은 비율이지만 규모면의 물동량은 큰 편이라 앞으로의 외국건설사들의 국내진출에 대한 레미콘업체의 ISO인증획득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98년 5월 현재 레미콘생산업체의 ISO인증획득현황은 총 558개사중 15%에 달하는 81개사가 인증획득하였다.

ISO 9000시리즈 인증획득한 업체현황은 다음과 같다.

	업 체 명	인증기관	인증규격	인증일자	비 고
1	한양(주)	TUV - B	9001	95.09.25	
2	고려산업개발(주)	BVQI	9001	96.01.13	
3	경북콘크리트(주)	KSA-QA	9001	96.01.27	
4	우리산업(주)	KPC-QA	9002	96.04.06	
5	대연콘크리트(주)	KSA-QA	9002	96.06.22	
6	(유)O.K	KSA-QA	9002	96.09.07	
7	동양시멘트(주)	KSA-QA	9001	96.09.13	
8	한라콘크리트(주)	KMA-QA	9002	96.09.20	
9	제일콘크리트공업(주)	KPC-QA	9002	96.11.04	
10	(유)제일레미콘	KPC-QA	9002	96.11.04	
11	백산레미콘(주)	KMA-QA	9002	96.11.08	
12	한일건재공업(주)	KPC-QA	9002	96.11.18	
13	현대콘크리트(주)	KSA-QA	9001	96.12.13	
14	대림콩크리트공업(주)	KSA-QA	9001	96.12.28	
15	곰레미콘(주)	KICM-QA	9002	96.12.30	
16	(주)유니온레미콘	KSA-QA	9001	96.12.31	
17	(주)한영레미콘	KMA-QA	9002	96.12.31	
18	(주)미륭레미콘	TRADA	9001	97.01.07	
19	신안레미콘(주)	KSA-QA	9002	97.01.14	
20	원우아스콘(주)	CQA	9001	97.02.17	
21	(주)한일아스콘	KICM-QA	9002	97.02.28	
22	(주)동아레미콘	KICM-QA	9002	97.02.28	
23	(주)광명레미콘	KICM-QA	9002	97.02.28	
24	(주)수성	KICM-QA	9002	97.02.28	
25	신진레미콘(주)	KICM-QA	9002	97.02.28	
26	(주)대왕레미콘	KICM-QA	9002	97.03.15	
27	(주)동남	KICM-QA	9002	97.03.28	
28	삼우콘크리트공업(주)	KMA-QA	9002	97.04.07	
29	국민(주)	KICM-QA	9002	97.04.07	
30	(합)고려레미콘	KICM-QA	9002	97.04.24	
31	대창건설(합)	KICM-QA	9002	97.04.24	
32	(주)영진레미콘	KICM-QA	9002	97.04.24	
33	동명레미콘(주)	KICM-QA	9002	97.04.25	
34	(합)고려실업	KICM-QA	9002	97.04.29	
35	강원레미콘(주)	KICM-QA	9002	97.05.15	
36	(주)산양공업	KICM-QA	9002	97.05.15	
37	유진종합개발(주)	KICM-QA	9001	97.05.19	
38	거성레미콘(주)	KICM-QA	9002	97.05.28	
39	(주)상경콘크리트	KICM-QA	9002	97.06.10	
40	(주)태양레미콘	KICM-QA	9002	97.06.12	
41	동방콘크리트공업(주)	KICM-QA	9002	97.06.21	

	업 체 명	인증기관	인증규격	인증일자	비 고
42	서산콘크리트(주)	KSA-QA	9002	97.07.03	
43	원방주택(주)	KOTRIC	9002	97.07.14	
44	천마콘크리트공업(주)	KICM-QA	9002	97.08.27	
45	세화산업(주)	KICM-QA	9002	97.08.27	
46	한일흥업(주)	KICM-QA	9002	97.09.06	
47	우림콘크리트공업(주)	KPC-QA	9002	97.09.06	
48	한승건업(주)	KPC-QA	9002	97.09.22	
49	덕원산업(주)	KICM-QA	9001	97.09.06	
50	동아건설산업(주)	KPC-QA	9002	97.06.23	
51	(주)정한	TUV	9002	97.11.27	
52	(주)태성레미콘	KSA-QA	9002	97.11.27	
53	(주)효신실업	KSA-QA	9002	97.12.29	
54	대진레미콘(주)	KICM-QA	9002	97.12.28	
55	(주)대왕	KSA-QA	9002	98.01.23	
56	동명산업(주)	KSA-QA	9002	98.01.23	
57	(우)우열레미콘	KSA-QA	9002	98.01.23	
58	대동남(주)	KSA-QA	9002	97.03.04	
59	대동레미콘(주)	KICM-QA	9002	97.05.28	
60	대륙개발(유)	KSA-QA	9002	97.03.25	
61	(주)대원산업	KSA-QA	9002	97.12.30	
62	대진레미콘(주)	KICM-QA	9002	97.12.29	
63	하나산업(주)	KICM-QA	9002	97.05.28	
64	삼성콘크리트공업(주)	KSA-QA	9002	97.03.04	
65	(주)신성레미콘	KMA-QA	9002	97.10.10	
66	신성콘크리트공업(주)	KMA-QA	9002	97.10.10	
67	용원산업(주)	KSA-QA	9002	97.12.30	
68	(주)우일레미콘	KICM-QA	9002	98.03.13	
69	원방산업(주)	KICM-QA	9002	97.06.08	
70	(주)일양	SMICC	9002	98.03.31	
71	전북콘크리트공업(주)	KSA-QA	9002	97.04.01	
72	(주)정한	KICM-QA	9002	97.11.27	
73	제일종합레미콘(주)	KICM-QA	9002	97.09.10	
74	(주)중원	KSA-QA	9002	97.09.23	
75	(주)청우산업	KSA-QA	9002	97.11.18	
76	(주)태명실업	KSA-QA	9002	97.12.30	
77	(주)태성레미콘	KICM-QA	9002	97.11.27	
78	(주) 태양레미콘	KSA-QA	9002	98.02.24	충북
79	동헌산업(주)	KICM-QA	9002	97.08.27	
80	(주)한일	KSA-QA	9002	98.02.24	
81	(유)현대산업	KSA-QA	9002	97.12.16	

- 레미콘등 물품대금 지급제도 개선 시행안내 -

조달청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각 수요기관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 중 레미콘, 아스콘의 납품시 품질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대금지급을 신속히 하기위해 사후시험검사 조건으로 계약자 및 공급업체의 "품질보증 및 물품대금반납 보증각서"를 징구하고 물품납품과 동시에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바, 매 납품요구 건마다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위 각서는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계약청인 조달청지방청에 일괄하여 제출한 각서내용과 중복하고 이미 반납금 지급보증을 위한 어음제출등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으므로 규제완화 및 업체편의를 위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본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여 1998년 7월1일 납품분분터 적용 시행키로 하였다.

1. 품질보증 및 물품대금 반납금 보증조치

계약자는 최초계약시 수요기관이 사후 사험검사 조건으로 물품납품 즉시 검수처리한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불합격시 대금반납 보증을 위해 "품질보증 및 물품대금반납 보증각서"를 공급업체인 전 조합원사와 연대 보증하여 반환금 지급보증용 어음과 함께 계약청인 조달청지방청에 일괄제출토록 하였다.

2.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행절차

물품납품은 계약자(공급업체)가 공사현장에 물품납품을 완료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의거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용기관 검사공무원이 공사편장에서 실시가능한 검사(공기압, 슬럼프측정 등)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공무원은 종전의 각서 징구 대신 별도의 품질보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급업체가 발행하는 납품규격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징구할 수 있다.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행은 수요기관의 공무원이 "시험검사전 발행"임을 표기하고 물품출납 공무원의 검수 즉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여 공급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영업활동 위축된 국내진출 외국건설사 -

지난 6월 20일 건설관련업계에 따르면 WTO출범과 함께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지난 96년 10월 일반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미국의 벡텔사, 플루어다니엘, 일본의 후지타사, 중국의 중국건축공정총공사 등 4개 외국건설업체들은 국내진출후 뚜렷한 수주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건설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나설계획이었지만 작년말 뜻하지 않은 IMF한파로 국내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수주활동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건설업체들 가운데서도 미국의 벡텔사와 플루어다니엘사는 일반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종도신공항건설과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의 감리용역에 치중하고 있을 뿐 시공부문에 있어서의 수주활동은 전무하다.

일본의 후지타사는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는 고미술관 신축공사도 공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다.

중국건축공정총공사는 자본금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상태여서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면허증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라 수주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외국건설업체는 차후의 국내건설경기가 호전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OC투자 내년 28.8% 증가 -

지난 6월 9일 건설교통부의 예산요구에 따라 예산청의 내년도 SOC투자규모를 올해보다 28.8% 많은 12조9천억원으로 늘려잡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SOC투자부문을 늘려잡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내년에 일반국도 건설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기간국도건설에 1조2천192억원, 고속도로건설 지원에 1조7천155억원, 경부고속철도 지원에 7천189억원, 인천신공항건설 8천649억원, 7대신항만 건설에 2천723억원, 다목적댐 건설 4천432억원, 6대도시 지하철 건설 지원에 1조1천54억원, 광역도로 · 광역철도 건설에 2천606억원,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 1천300억원, 충북선전철화 370억원 등 모두 8조3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현재진행중인 SOC확충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에 1천800억원을 들여 영구임대주택 2만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 기간국도 7차건설 착수 1천200억원, 대중교통지원(공영차고지 건설등) 1천315억원, 호남고속철도 지원 50억원, 천안~부산전철화 563억원, 3기 서울지하철건설 착수 45억원 등의 신규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같은 건교부의 적극적인 SOC투자방침과 관련 예산청 관계자는 금년 SOC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던점을 감안 건교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7월말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와 예산배정방침을 결정하고 예정대로 2000년말 개항할수 있도록 인천공항 잔여사업비의 80%를 내년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 대폭확대 -

조달청은 지난 6월 17일 '98년 3월중순부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신설 : '98. 2. 2)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바 있으며, 그결과 업체들로부터 경비절감과 편의가 매우크다는 환영과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대폭확대하고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함을 발표하였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 대폭확대 내용으로는 내자구매(용역포함)품목이며, 대상자는 구매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입찰의 입찰참가자 전원이다. 그러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한 입찰참가자,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자구매의 경우 원자재, 대량물자, 농산물 등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물자 또는 시스템장비등으로 배정금액의 품명당 단가가 미화 100만불 이상인 물자 이외의 경우는 종전과 같다고 발표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절차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내자구매시 입찰일 당일 입찰장소에서 입찰서와 겸용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였으며, 외자구매는 입찰일 당일 입찰장소에서 제출하여야 하고 소정서식은 종전과 같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 확대 적용은 '98년 6월중순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라고 덧붙였으며. 외자구매는 '98년 3월1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조항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하도급대

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60일을 초과할 경우 보증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약관조항은 부당하다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공정위의 심사의견으로 하도급대금지급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하되 어음일 경우에는 60일까지만 할인료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 만기어음으로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하도급대금이 9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제조합의 이같은 약관조항은 지급보증제도의 목적달성을 어렵게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약관중 제6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제6조의 내용이 주계약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사소한 대금주기 및 지급기일의 불일치 경우까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제9조의 신의원칙상 특히 계속적보증의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적 요인이 개입되면 보증채권자의 비협조 때문에 늘어난 손해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이 당연하지만 이를 이유로 보증금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영동고속도로 확장구간 RBM공법 채택 -

현재 한창 공사중인 새말~강릉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서부터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에 이르는 4.6km구간중 3.3km의 터널구간을 수직갱굴착공법인 RBM(Raise Boring Machine)공법을 채택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공초기단계에서 국내에서 가장긴 터널이었던것을 감안 최초로 RBM공법을 이용한 수직갱굴착을 통해 터널내의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

터널시공시 강섬유보강 숏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와이어매쉬를 없앨수 있으며, 그로인한 시공불량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할수 있고 작업공정의 시공성을 높일수 있다고 현장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삼각지보를 이용한 강지보의 무게를 40%감소시켜 시공성제고와 함께 숏콘크리트 타설시 강지보배면의 공극을 최소화하는 등의 시공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RBM공법은 유압구동장치와 선단에 비트가 장착된 드릴로 암반을 천공한후 천공선단에 확공용 굴착기를 장착해 다시 반대방향으로 굴착하는 방식으로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주)경동건설사업부가 시공을 맡고 있다.

RBM공법의 특성은 수직과 사갱을 유압기계력을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으로 굴착속도가 빠르며 시공중 주변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정밀시공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건축허가 면적 1~5월 작년比 42% 급감 -

IMF이후 국내경기가 전반적인 침체속에서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이 계속줄어들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1/4분기중의 건설투자가 1980년 이후 최저의 수준을 기록하여 건설사 및 건설자재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건축허가면적은 26,028,000m^2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959,000m^2보다 무려 42.1%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용도별로는 주거

용이 16,163,000m²로 지난해 23,689,000m² 보다 31.8%로 상업용은 4,981,000m²로 57.0% 공업용은 1,219,000m² 70%, 문화 · 교육 · 사회용 등은 3,665,000m²로 34.8% 각각 감소했다.

- 건설업계 경영악화로 부도 다시 증가 -

지난 연말에 이어지는 부도사태는 금년 4월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일반건설업체들의 부도 비율이 5월들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년 5월까지의 부도업체는 1월 75개사, 2월 · 3월 각각 60개사, 4월 48개사, 5월 45개사로 지금까지 모두 2백68개사에 이르렀다.

주춤하던 부도율이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은 건설공사의 발주지연과,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사수주실적의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건설업체의 자금회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경제정책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방식이 경제활동의 인프라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립을 수반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부도율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건설산업연구원은 밝혔다.

이는 국내 많은 건설업체들이 높은부채비율과 열악한 자기자본등 전통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산업별대출에 있어 건설업체들은 더욱 심한 자금난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부도율이 증가해 3/4분기에는 매달 60-65개사 정도의 기업이 쓰러질 것이라고 건산연관계자는 밝혔다.

- 올해 기업시설투자 대폭 감소 전망 -

경기침체로 인한 올해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같은 기업들의 시설투자 감소는 IMF체제에 따라 대폭축소했던 연초의 투자계획을 최근의 경기상황으로 더욱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월 11일 발표한 '

시설투자 진척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시설투자는 전년대비 50.2% 감소한 10조2천466억원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들어 기업들의 계획했던 시설투자는 -41.4%에 비해 8.8%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으로 지속적인 고금리와 시장경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건설산업의 침체에 따른 골재재고량 증가 -

지난 6월22일 한국골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골재생산량의 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투자 규모가 7.7%감소한데 따른 여파로 해석되며, 무엇보다도 전년말 IMF체제이후 대형건설사의 부도 및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등으로 경기의 불투명이 신규투자의 억제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골재의 재고량 증가로 일부 골재생산업체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하반기의 건설경기 또한 불확실한 실정이라 일부 골재생산업자의 공장가동

【골재가격현황 ('98. 5. 20일 현재)】

지역 \ 골재원		골재가격 (상차도, 원/m^3)					
		모 래			자 갈 (25mm)		
		하 천	바 다	육 상	하 천	산 림	육 상
수도권	포 천					7,000 (7,500)	
	인 천		6,000			8,500	
	평 택		5,500			7,000 (8,300)	
	여 주	8,000 (9,000)			7,500 (8,500)		
	양 평	7,500 (8,500)			7,000 (8,000)	8,000	
	미사리	12,000 (11,000)			11,500		
	김 포	7,000	7,000		9,000 (8,500)	8,500 (9,000)	
	파 주	7,000			7,500	7,200	
강원	강 릉			8,500 (10,000)		6,000	7,000 (8,000)
	양 양			8,000		6,500	8,000
	홍 천			8,000		6,500	7,000
	춘 천	8,925 (8,300)			8,593 (8,020)	6,000	
	원 주	8,160		9,000 (9,600)	5,460	6,000	6,000
충북	청 주	7,500 (7,000)		7,500		6,700 (6,500)	
	충 주	7,500		7,200 (7,000)	5,000	6,000	5,000 (6,000)
대전·충남	공 주	8,600 (8,200)			5,500 (5,200)	7,000	
	서 산		8,000			6,500	
	연 기	9,000 (8,500)			5,500 (5,000)	6,000	
	아 산					7,000	
	대 전	8,000				5,500	

지역 \ 골재원		골재가격 (상차도, 원/m³)					
		모 래			자 갈 (25mm)		
		하 천	바 다	육 상	하 천	산 림	육 상
	청 양	8,200 (7,700)			6,000 (5,700)	6,500	
전 북	전 주					6,500 (7,500)	
	남 원			8,500		7,000	
	정 읍	11,000		11,000		7,000 (8,500)	8,500
	군 산		9,500 (8,500)			8,500 (9,000)	
광주·전남	목 포		6,800 (6,700)			6,500 (6,700)	
	순 천		8,000			7,200	
	광 주	8,500 (9,000)		8,500		6,500	
	나 주	7,500				7,000	
	강 진		6,500	7,000		6,000 (6,500)	
대구·경북	안 동	5,100 (5,200)			4,300 (5,280)	6,000	
	성 주	6,000			5,900	6,000	
	칠 곡	6,000			5,900	6,500	
	대 구	5,900				6,500	
	구 미	5,100				6,000	
부산·경남	합 천	6,100				6,500	
	창 원	5,200				6,000	
	울 산		8,500			5,500	
	창 녕	5,050					
	부 산	6,000	10,500			6,500	
제주	북제주군		8,200			12,000	12,000
	남제주군		8,200			12,000	12,000
	제주시		8,200			12,000	12,000

자료 : 한국골재협회
※) ( )는 전월가격

이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골재생산량의 재고증가로 골재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상차도 가격이 기존 거래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골재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 북한의 건설산업 마이너스 성장-

지난 6월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7년 북한의 GDP 추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건설산업 국내총생산 규모는 1년동안 1조 574억원대에 머물러 지난 96년보다 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설GDP가 61조6천321억원에 달한것에 비교하면 58분의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년5.9%의 플러스성장을 끝으로 91년 3.4%, 94년 26.9%, 96년 11.8%등으로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바 있어 지난해까지 7년동안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었음을 보여줬다.

그 주요요인으로는 투자재원 및 건설용자재의 부족 등으로 주택건설이 꾸준히 큰폭으로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건설산업의 감소폭이 전년의 11.8%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중소형 발전소건설과 홍수피해복구 작업등이 추진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지난해 전체산업GDP는 16조7천840억원으로 이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불과해 지난 95년의 6.7%, 96년의 6.4%보다 낮은 것이어서 북한 전체산업구조의 악화동향보다 건설산업의 침체동향이 한층 심각함을 반영해 주고 있다.

- 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대폭인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6월 17일 IMF체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술자 경력증명서와 기술자보유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각각50%씩 인하하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기술자경력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부당 기존3,000원에서 1,500원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는 기존 7,0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이로인한 건설업체들의 PQ입찰과 각종 인·면허신청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비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감독위 퇴출기업55개 확정발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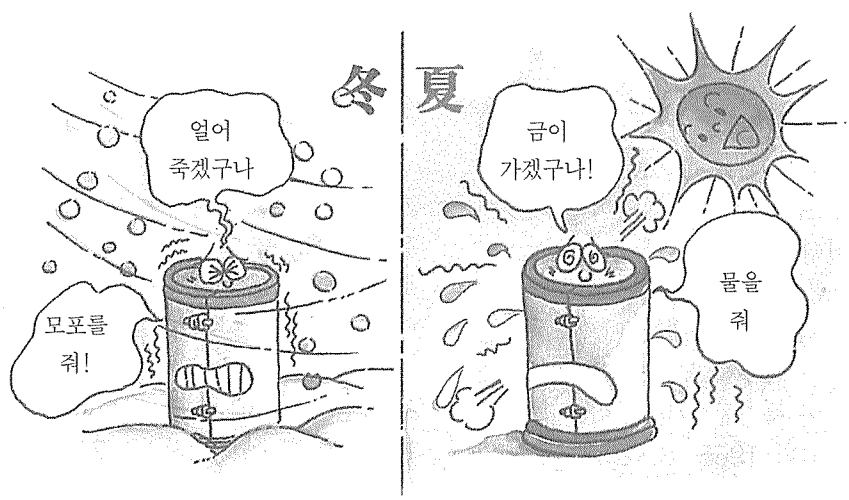
지난 6월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5대 그룹 계열사20개를 포함하여 모두 55개로 최종확정하고 그 리스트를 발표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과 裵贊柄 상업은행장은 금감위9층 회의실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퇴출대상 명단과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퇴출대상기업은 다음 표와 같다.

그룹명	퇴 출 대 상 기 업	비 고
현대그룹	현대리바트, 현대중기, 현대알루미늄, 선일상선	
삼성그룹	삼성시계, 이천전기, 한일전선, 대도제약	
대우그룹	한국산업전자, 오리온전기부품, 동우공영, 한국자동차연료시스템, 대창기업	
LG그룹	LG전자부품, 원전에너지, LG오웬스코닝	
SK그룹	SK창고, 마이TV, 경진해운	

그룹명	퇴 출 대 상 기 업	비 고
쌍용그룹	범아석유	
한화그룹	오트론, 한화관광	
동아그룹	동아엔지니어링	
효성그룹	동광화성, 효성미디어, 효성원넘버	
고합그룹	고합IP, 고합정밀화학, 고합텍스타일, FCN	
해태그룹	해태유통, 해태전자, 해태제과	
신호그룹	신호상사, 신호전자통신, 영진테크	
뉴코아그룹	뉴타운기획, 시대축산, 시대유통	
거평그룹	대한중석, 거평산업개발, 거평종합건설	
한일그룹	한일합섬, 진해화학, 남주개발, 신남개발	
갑을그룹	신한견직	
동국무역	동국전자	
통 일	일화	
우 방	태성주택	
한국합섬	이화상사	
	※대한모방, 양영제지, 우정병원	비계열3개사



초기양생은 거듭해서 주의를